

과목: 대학 글쓰기

이름: 한 예 은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311484

흠 잡을 곳 없이 좋은 에세이를 작성하였음. 발표 태도도 내용도 매우 좋음.

인권유린과 강행, 어떻게 봐야 하는가?

### 1. 서론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 세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강행이라는 점이다. 강행은 강제로 시행하거나 마지못하여 억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이는 한 사람의 삶을 봉쇄하는 악습이다. 이런 악습문화는 비교적 문명화된 곳에선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에선 아직도 악습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왜 추정이라 하는가? 우리는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이 어디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국 농촌에서는 과거 서리가 용납되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서리가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현대는 농산물 절도로 분류된다. 허락없이 타인의 것을 훔쳐간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농작물을 몇 개 훔쳐먹는 정도라 동네 주민들도 서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서리가 어디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서리와 범죄는 한 끝 차이이다. 마을 주민들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이 행위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 더이상 하지 못하게 제지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가 된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몰랐다고 말한다면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만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혼, 여성 할례, 명예 살인은 어디선가 일어나지만 마을 주민들이 문제삼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악행으로 볼 수 있다.

---

<sup>1</sup>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ed7d7696d3043d28ffe9e1ed2b8fb45>

## 2. 본론

### 2.1 조혼

조혼은 일찍 조에, 혼인할 혼, 말그대로 일찍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인 적령기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일찍 혼인하던 풍속을 말한다.<sup>2</sup> 모잠비크의 경우, 십대 소녀들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어린 신부들은 가정 및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으며 남편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남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된다.<sup>3</sup> 성숙하지 않은 여성들이 타인의 압박으로 강제로 하게 되는 조혼은 자신들의 합당한 권리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급격하게 바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삶이 정체된 아이들의 인권과 생활은 어떻게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해야 한다. 또한 낯선 환경 속에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낄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고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어린 소녀들의 성장 가능성과 자기발전을 막지 않게 하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선택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2.2 여성 할례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성기에 칼을 대는 시술이다. 아프리카 여인에게는 숙명같은 것이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관습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은 결혼조차 할 수 없다.<sup>4</sup> 할례는 일부다처제가 만연시 되는 아프리카의 문화로 여성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버렸다. 성인이 되어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인권이 제한당하는 시술을 받게 되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명백히 제한되어야 하고 행해지면 안되는 문화이지만 단지 한 나라의 전통으로만 용인하여 인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받지만 다시 자신의 딸에게도 할례를 시킨다.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 뒤에 숨겨진 폭력이다. 어린소녀는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저항하지 못한다. 그저 어른들의 압박에 의해 받아들일 뿐이다. 여성할례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고통받지만 왜 지금도 존재하는가? 바로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불결하지 않

---

<sup>2</sup>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771>

<sup>3</sup> 왕선애, 「모잠비크의 조혼 관습이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아시아여성연구』제 60권 2호, 27쪽

<sup>4</sup> 홍진주, 「아프리카 여성할례와 문제점」, 『여성연구논집 제13집』, 1쪽

고 정결해진다고 믿으며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라면 이걸 자율적인 선택과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 암묵적인 강요가 되는 것이다.

유엔은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또한, 여성 할례를 전통 의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그랜드마더 프로젝트가 있다.<sup>5</sup>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게 해주고 조혼과 여성 할례의 문제점을 직접 인식할 수 있게 도와 그들의 생각과 처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여성 할례의 심각성과 부작용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여성 할례를 의무로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 2.3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주로 이슬람권에서 관습으로 행해지는 종교적인 풍습이다. 주로 순결이나 정조를 잃거나, 타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부모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녀를 살인하는 행위이다.<sup>6</sup>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매우 모순적이다. 존엄이나 품위를 뜻하는 명예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살인은 그저 추악한 행위일 뿐이다.

파키스탄은 명예살인 처벌 법안의 통과되기 전까지 희생자 가족이 명예살인을 용서하면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이 존재했다. 이는 면죄부로 악용되었고, 경찰이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다.<sup>7</sup> 23년 9월, 최근에는 정략결혼을 하기 싫다고 한 18살 딸을 죽인 파키스탄 가족의 명예 살인이 있었다. 살해 동기는 자신의 딸에게 정략결혼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였다. 이 살인이 과연 가문의 명예나 정조를 잃는 일이었을까? 살인은 그저 살인일 뿐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정당화할 수 없고, 이는 생명권에 대한 미숙한 인지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가족의 생명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 2.4 찬성

악습을 전통으로 보고 문화의 상대주의 측면에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다. 먼저 명예살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명예이

---

<sup>5</sup> <https://blog.naver.com/wfamily/222638739171>

<sup>6</sup>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7361&cid=43667&categoryId=43667>

<sup>7</sup> <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1610072130005#c2b>

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살인을 하여 명예를 지키려야 한다는 것이 자행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그들에겐 이러한 신념이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있지만 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상의 근간과 배경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악습이 존재하는 곳은 여성의 인권이 현저하게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악습과 여성의 인권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동등하게 보지 않기에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한다.

### 3. 결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옹호하고 인정해준다면 이것은 곧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될 것이다. 이는 곧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이자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모순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인 법칙을 우선시하기에 난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은 폐지되어야 할 악행이라고 생각한다. 여성할례에서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할례를 의무로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듯이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세상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교육이 있다면 여성의 인권 존중과 함께 이러한 악습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우린 올바른 시각에서 인권유린과 문화의 존중을 구분할 책임과 필요성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조혼의 시행은 의견을 묵살하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아직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악습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4. 참고문헌

왕선애, 「모잠비크의 조혼 관습이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아시아여성연구』제 60권 2호, 27쪽

홍진주, 「아프리카 여성할례와 문제점」, 『여성연구논집 제13집』, 1쪽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ed7d7696d3043d28ffe9e1ed2b8fb45>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771>

<https://blog.naver.com/wvfamily/22263873917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736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1610072130005#c2b>